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383>

JCCT 2021-8-45

## 이민자 공동체의 공간적 경관

# Spatial Landscape of Immigrant Communities in Seoul

이자원\*

Jawon Lee\*

**요약** 도시 경관의 다양성은 건축물과 가로패턴, 그리고 사람들의 인문적 특성 이른바 언어와 색과 움직임 등의 동태적 특성에 의해 정립된다. 한국의 해외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행정과 국토정책상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행정, 사회학적, 그리고 지리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국가별 민족별 상이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기존 주류사회와 어떠한 통합 과정을 거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실험은 미흡한 상황이다. 통계적 데이터의 결핍된 부분과 소수 비율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대표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통합적 전략에 대한 핵심요소를 지표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행태와 공간적 특성이 우선 파악되어야 한다. 통계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소수의 공동체에 관한 공간적 요소를 분석을 위해 경관적 접근을 실험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이주민 집단, 공간적 경관, 도시지리학, 공간 유형, 사회 집단

**Abstract** The diversity of urban landscapes is established by dynamic characteristics such as language, color, and their movement, which are the building environment, street patterns, and people. With the increase of foreign migrants in Korea, new guidelines are needed in terms of local community administration and land policy. Administrative, sociological, and geograph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migrants since the 2000s,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for making safe and healthy communities through which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of each country and ethnic group undergo some integration with the existing host society. There are limitations in identifying the lack of statistical data and the representation of a minority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core elements of the integrated strategy of the local community, the residential behavior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migrants must first be identified.

**Key words** : Migrants communities, Spatial landscape, Urban geography, Spatial pattern, Social commun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표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역의 의사결정 구조, 집단 간의 갈등과 유기적 상호관계, 빈곤, 불평등, 불균형 발전 및 축적 체제의 경제적

\*정희원,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1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8일

Received: July 30, 2021 / Revised: August 5, 2021

Accepted: August 8, 2021

\*Corresponding Author: jlee1109@gmail.com

Dept. of Geography, Sungshin Univ, Korea

상이성 등이 지역을 구분하는 인자가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신뢰, 관련성, 네트워크 등에 이르는 문제가 등장하고 이는 물질화된 경관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지리학은 이러한 지표상의 문제를 설정하고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어떤 현상과 문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간 현상과 패턴을 사회관계와 구조의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다. 19세기 도시화가 전 지구상의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 집단과 공간의 관계는 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형성되었고 사회집단과 공간 패턴의 상관성이 도시지리학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19세기의 프랑스 사회학자 르 플레이(Frederic le Play)는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필연적 조건으로 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집단을 ‘사회’로 규정하면서, 긴밀한 유대감 위에서 함께 살고 생활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고 하였다. 가족은 혈연적 유대로 구성되어 생존을 위한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소’적 특성에 의존한다고 설명하며 사회집단과 공간의 관계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 이후 블라쉬(Vidal de la Blache)는 공동체의 관습과 제도, 전통 및 생활양식의 총체가 그들이 서식하는 공간의 환경을 구축한다고 규명하였다. 이러한 인문지리학적 사고는 사회집단의 장소적 특성과 자연 혹은 문화적 환경의 유기적 체계 연구로 이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인간의 유기체적 사회 공간이 어떻게 환경과 지리적 범주를 확대 혹은 확산시키는지에 집중하면서 인간생태학적 연구로 확장되었다. 특정 장소와 지역이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구분되고 작은 사회의 파편들이 모자이크되면서 공간화 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동과 침입 또는 이질적 이식과 이후의 친이 등은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연구과제가 되었다. 공간적 전환과 경제적 원인을 주요한 사회의 다규모 이동은 새로운 공간 현상과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 구축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모더니즘의 관심이 이러한 사회적 공간의 변이 현상에 주목하였고, 르페브르(Henri Lefebvre)[2], 기든스(Anthony Giddens), 카스텔(Manuel Castel) 등은 사회적 생산의 산물이 배제된 공간의 관련적 관계만으로는 공간을 개념화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3]. 공간은 자본주의의 발달과도 크게 관련이 있고, 공간 환경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다규모의 인구 이동 혹은 사회 이동은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힘, 그리고

이를 통한 공간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포스트모던적 사고가 분석의 틀이 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이 확증되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통계화와 법리적 제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 결혼 이주자 및 외국 유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 통합 등 사회문제로써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2000년대 들어서 외국인 이주민들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로 간주하면서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인구이동이 아닌 지역사회 친이 과정에서의 민족 혹은 인종과 문화적 혼합이 큰 이슈가 되었고, 이에 공간적 접근과 개념화는 필수적이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쟁점은 인구문제와 노동력에 대한 출입국 및 외국인 노동자 구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이라는 국토 전반의 정책문제와 함께 출발했다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럽 제국들이 경험했던 다각적 차원의 순차적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연구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영향이 국제적 인구이동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또는 인구 구조적으로 어떠한 이주민의 그룹이 형성되고 통계적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2010년대에는 이주민 노동자그룹, 결혼 이주민, 유학인 그룹의 출발지와 거주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그 추이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다 2010년대 후반에는 공간적 접근, 이른바 사회적 상호 작용과 사회적 제도의 공간화 또는 공간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등에 관심을 갖는 연구물들이 발생하면서 분절적 장소적 차원에서의 담론화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관계, 그리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성과 유형에 대한 정성적 해석, 사회적 상호 행위가 지속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조, 그리고 공간 상에서 보여지는 힘의 관계에 대한 헤게모니적 개념에 대한 추론 등이 관련 연구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건조환경의 시각적 배열과 인공적 디자인,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읽음으로써 도시 형태의 문화적 상징적 의미체계의 다양한 인과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이른바 경관 연구의 시도라 할 수 있다. 도시 연구에서 경관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경관을 지닌 이주민의 공동체 경관을 계량화하기 힘든 통계적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주민의 지역사회에 관한 독특한 실체를 규명

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이주민 경관이 나타나는 몇 개 지역을 사례로 경관적인 특이성을 토대로 공간적 개념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국토정책의 차원에서 외국인 공동체의 밀집지역에 대한 엔클레이브 현상과 이들에 의한 이국적 경관은 장소성의 문화적 공간 창출에서 장소마케팅은 물론, 경제적 효과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후퇴한 제조업의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업 기술 연구생을 모집하면서 한국은 외국인 장기 거주자의 이입을 사실상 지원하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법무부, 2009)[4]. 이후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이입이 증가하고 이에 기존의 미등록노동자까지 집계하면서 한국의 외국인 이주 수치가 계량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에 결혼이주 여성의 이입률의 증가가 더해지면서 법무부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통계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지면서 이들의 공간적 분포 및 중심점에 대한 지리학적 분석이 대거 이루어졌다. 외국인 이주민을 다문화 사회라는 매우 통합적 의미의 용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이주민의 출발지에 따라 국적, 혹은 인종을 중심으로 계량화하고, 거주지에 대한 지리적 분포 및 중심점을 파악하여 이들 공동체의 규모와 거리적 차이를 가늠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다문화의 사회적 의미와 공간적 특성은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의미를 생산하게 되고, 유능한 외국인 기능자 혹은 인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쾌적한 환경의 구축은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지리적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토 정책 개발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통계적 분석은 단순히 지리적 분포에 집중되어있지만, 이는 공간상 서로 다른 지역에서 문화적 장소성을 추론할 수 충분한 근거가 되고 궁극적으로 경관적 특성으로 구분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경관' 요소에 주목하면서 서

울시 특기할만한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 방배동 서래마을, 그리고 가산동과 대림동 등지의 중국인 밀집지역을 사례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사례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경관을 창출하는데 영향이 되는 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간판과 공간 디자인, 음식점 분포의 특성 및 건물과 사람들의 언어 경관 등이 녹아 장소적 특이성에 의해 매거진과 기사, 블로그 등에서 회자되는 상징적 표현 등을 모아 데이터마이닝하여 클라우드되는 특징을 추출하고자 했다. 빅데이터[5]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수집하였고, 2015-01-01~2021-05-08 기간 중의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다룬 기사를 중심으로 장소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rJava, KoNLP, worldcloud 등의 패키지를 활용하여, 한글 문서의 형태소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기호(.!()[] 등)을 분리하여 com-R 분석으로 단어를 추출하였다.

인식 상에서 보여지는 해외이주자 공동체에 대한 특성과 함께, 이들 작은 스케일의 해외 이주민 공동체의 지역 사회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현재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로 구분하여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단기체류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등록외국인의 통계연보는 1960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으나 장기체류외국인 통계를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및 출신국적별로 집계를 시작한 것은 2008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 집단이 되는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의 인구가 자치구별, 출신국적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등록외국인 인구 통계를 활용하였고, 중국인 통계는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과 비한국계 중국인을 모두 포함하였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동별 통계자료는 2016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동 자료가 비공개되어서 부득이 시군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6].

문화적 특성과 공동체 규모의 소수적인 외국인 공동체의 공간적 분포는 그들이 속한 지역과 어떠한 사회적 연대, 혹은 통합되면서 공간적 정착(spatial fix)[7]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공공 디자인에 대한 시안

과 국토 정책을 설계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본 론

### 1. 해외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공간적 접근 연구

한국에서 다문화사회의 정책적 논의와 행정 관리를 위해 2000년을 전후하여 다문화주의에 관한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제조업 쇠퇴와 함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결혼 이주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입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실태 파악과 외국인 이민자들의 국내 입장(status)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였다 [8].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외국인 이민자는 노동이민과 결혼 이민 이외에도 유학 등의 여러 형태로 분류되었고 단순히 인구와 인력의 시점을 넘어 이민정책의 개선과 국토 정책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했다 [9].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입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의 영주로 인한 지역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행안부 집계(행안부, 2009, 2019)에 따르면, 2000년 초 49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이후 10년간 두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2010년 110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이 수치는 남한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인구였고, 이후 2020년까지 221만명으로 또다시 두배의 증가치를 보였으나 역시 이 비율은 전체의 4%를 차지한다[10]. 더욱이 이들 중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인구는 19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거주 유형상 영구 거주자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즉 한국사회에서 다민족 다인종의 이입이 20세기와 달리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지역 사회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다문화사회라는 단정이 적절하지 모호하다. 부모의 출생 국적이 하나 이상일 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구분한다고 정의하지만, 이는 국제결혼에 의한 가족 특성만을 반영하였을 뿐 지역 차원에서 각기 다른 인구 즉 성별 직업별 경제상황별 출발 국가별 등 다양한 인구구성에 대한 사회적 특성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경(2010)[11]은 다문화가족의 용어가 국제결혼에

의한 가족적 특이성이 지니는 부정적 의미라던가 지역 사회 구성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낡았음을 완화시키기 위한 용어적 포장이 아닌가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과연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들이 있다. 현재까지 시행해온 많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문화다양성이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홍보하고 자연스러운 동화를 이끌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기성 구성원에 비해 취약한 소수 구성원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12].

이와 같은 다문화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리학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확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데 주목하였다. 초국적 자본주의의 확장과 자본 축적의 전략에 의해 노동력의 국제 이주가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공간의 다문화적 변이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였다는데 주목하고 사회학이 제시한 사회공간적 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였다 (Mitchell, 1993, 최병두, 2009 재인용)[13]. 후기 자본주의에서 국제 이주민들의 행태가 범지구적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노동의 재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이 속성이고 이에 의한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이 연계되면서 다문화의 논의가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역할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되어 통합적 구조를 이루기 위해, 문화적 논리를 ‘사회’ 공간으로 투영하려는 전략의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 공동체의 사회공간적 갈등을 배제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능동적인 다문화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주된 과제로 등장하였다.

지리학에서 사회학적 이념을 실천화하는 방안으로 공간적 전환을 분석하고 다규모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공간적 현상의 발생과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공간적 전환은 글로벌화, 그리고 이와 병행하는 글로벌화의 제 현상들로 인해 필연적이다. Dirlik(2001)와 Jessop(2002)에 의해 제시되었던 시간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결국 공간적인 주도에 의해 그 주제가 장소와 규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4]. 범지구화과정에서의 자본주의는 공간적 변이를 이루는데 큰 몫을 하였고, 자본의 축적 과정 속에서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이동을 주관하면서 공간들이 방향을 따라 확장되거나 재편되어 왔다. 공간은 자본주의 시장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공간 자체가 상품화되면서 자본 축적 과정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즉 사람과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사물들이 공간에 위치하고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공간적 속성을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으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공간적 차원을 응용해 구조주의적 연구도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범지구적 국제 이주에 의한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 정책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면서 소수공동체에 대한 환경적 정의 개념이 등장하고 [15], 소수자의 철학, 이념, 정책과 사회적 운동을 인정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보호와 권리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6]. 박배균(2011)은 사회공간적 관계를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네 층으로 구분하고, 사회공간적 인식론을 전개한 Jessop(2008)의 틀을 인용하여 공간적 차원과 결합되는 사회적 관계의 필연성과 이들 관계의 경계, 그리고 이 관계들의 지역적인 천이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장소와 차별화된 계층성, 그리고 연결성과 결절점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등의 핵심을 공간상에서의 사회적 과정이라 해석하였다 (그림 1)[17].



\*Jessop, 2008, 박배균, 2011 재인용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

그림 1. 사회공간적 관계의 네가지 차원과 핵심적 구조원리 및 관계 패턴

Figure 1. The Four Socio-Spatial Dimensions and Each of the Core Structural Principles and Patterns of Relationships

장소는 입지(location)와 지역 규모(locale) 및 장소감(sense of place)을 내포하는 의미(Agnew, 1987)로 특정 지점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주변 환경 및 사물과 사물들이 집결하면서 특유의 입지를 형성한다 [18]. 그리고 지역과 지형적 특성에 의거하여 그 규모에서 일정 범주를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경험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사회적 구성체가 형성된다.

일정 장소에 소수의 외국인 이입집단이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이주자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 입지가 형성된 장소를 찾아 이입하는 과정을 갖는다. 즉 지리적 공간이 위치를 기반으로 이입해 온 초기 이주자들의 경험이 반영되어 그 다음 시기의 이주자를 연계시키는 결절점의 역할을 하며 기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더 장소화되는 것이다.

장소는 내부의 속성이 연대감을 갖고 특이한 형태로 다른 장소와 구별이 되면서 그들의 동질성의 범주가 형성되는 영역을 갖게된다. 즉 장소의 영역이 구분되는데, 이는 내부적 속성의 결집력과 맥락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외부 행위자들의 이른바 편견, 혹은 배타적 구분에 의해 경계가 지어지기도 한다 [19]. 영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규모를 이루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관한 군집분석 및 상이성 지수 분석 등을 보면 이민자의 국적 인종의 특이성이 선호와 차별 등의 거주지 분리현상에 영향을 주고 사회공간을 변이시킨다. 거주지 분리에서 나타나는 영역의 설정은 내적 동질성을 지닌 긍정적 차원의 영역구분과, 외부에서의 배타적 요인, 예컨대 사회경제적 요소에서 비롯된 차별적 요소들에 기인한 피동적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장소와 영역의 규모가 수평적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의 공간적 특성이 구분되고 그들의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의 국제이주의 사회적 원인과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상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특성들은 지리적 스케일 즉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규모 지역 등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차별화되기도 한다. 수평적, 수직적 차등성에 의해 구분되는 외국인 이주자의 공동체 특성은 이들이 소속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진단해 봄으로써 보다 세밀한 특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공간적 특성이 이러한 속성을 반영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해외이주민의 정착지역에 대한 사회적 통합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학적 지리적 측면에서 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현상을 벗어나 공간적 접근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특정 국가나 인종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사회적 동화과정 혹은 공간 구성상의 특성에 대한 핵심 사례 연구는 드물다. 동 읍 면 리 단위의 해당 지자체에 속해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각각의 이주민 정착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동화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김혜진과 이자원은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지 분리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공간적 접근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20]. 등록 외국인을 체류유형별, 국적별, 행정단위별로 분류하여 통계적 추이를 시계열별로 확인하였다 (2017년 기준). 수도권의 외국인중 49.8%가 전체 등록 외국인 중 비전문직종에 대한 노동이민이었고, 이 밖에 결혼이주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자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는 이주 유형과 상관하여 제조업체 분포가 집중해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서울 영등포구 일대, 경기 화성시, 서울 구로구, 경기 시흥시 순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역시 장소적 특성으로 그들의 이주 목적에 준한 지역의 정착이 후기제조업 경관의 단편이 되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초기 이주자들의 취업, 주거, 생활편의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통해 그들의 결절점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의 해외 이주민의 비율을 볼 때 중국인(한족+조선족+그리고 중국인을 합해 61.1%)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베트남 (6.3%), 필리핀 (3.2%), 캄보디아 (2.5%)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들 대부분이 저숙련 비전문직 노동력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Massey와 Denton(1988) [21]이 고안한 상이지수와 중심성지수[22] 분석을 적용해보니, 초격리 수준의 거주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특성과 함께, 서로 다른 민족이라도 저숙련 비전문노동직이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서로의 공동체가 밀접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란지수의 결과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매우 클로스터화된 지역으로 판단된바 있다. 중국인 거주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은 등록 외국인 중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들의 중심화지수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보여져서 통계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지만, 흔히 서울시 내의 몇

몇 외국인 밀집 지구로 연상되는 이태원이나 방배동의 서래마을은 인구 혹은 가구수가 매우 작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중심화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인 거주밀집지역과 이태원, 그리고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경관으로 상징되는 작은 지구는 분명히 서로 다른 경관을 형성하고 일반적으로 회자될 수 있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추론컨대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내 상이성 또는 격리성 등도 다를 것이다. 외국인 거주지의 특성이 국가와 민족, 또는 이주목적에 따라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등록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면 지역 공동체의 행정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관의 파악을 통한 이주민 공동체의 속성을 보다 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울시 몇 개의 사례를 선정해 실험해보기로 한다.

## 2. 서울시 외국인 공동체의 사례 분석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2020) [23]를 보면 여전히 중국인 이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전문직 이주자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전체 등록 외국인의 7% 내외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문직 이주민의 직업 특성은 기업활동 관련적으로 연구와 기술분야 직종에 종사하거나 외국어 강사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밖에 연예, 스포츠 계열의 전문직 종사자가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른 유형의 장기 거주 등록 외국인에 비해 도시중심화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고차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종로구 등의 중심 업무 지역과 대기업 통제 기능과 연관있는 울산 조선산업 분포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이 보인다. 전문 기술 및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은 기업활동 관련 지역과 연계되어 있고,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직 해외 이주민은 대학과 연구단지와 연계한 공간성을 지닌다. 반면, 외국인 강사인 경우에는 학원과 대학 집중성이 높은 서울과 광역대도시권의 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거주지 패턴이 기존 외국인 밀집지역과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분포한다. 이들의 공동체 형성은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적 접목과 발전성이 다른 유형 이주자들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나타나 기존 주류사회와 접촉하여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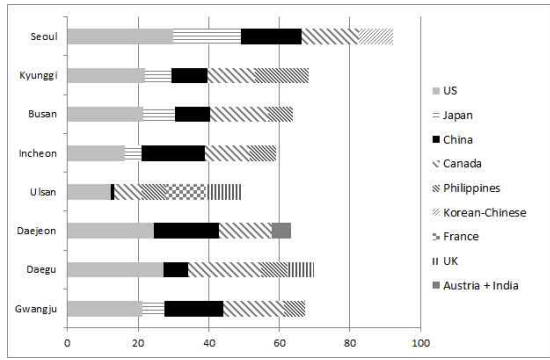


그림 2. 대도시의 전문직 해외 이주자 비율 (상위 5개국)  
 Figure 2. Distribution of Professional Job Migrants on Big Cities (top five countries)

전문 기술, 산업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 외국인들이 기술산업의 통제지역에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외국인 강사, 프리랜서 직종의 외국인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 거주 공동체 지역 중 문화와 언어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에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거지 분화를 이루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출발 국가와 유사한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기존의 지역 사회에서 고유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오히려 문화적 특성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글로벌 빌리지적 특성을 보이며 보다 새로운 문화를 이식하고 그 다음 세대의 또 다른 이주자들의 또다른 문화를 수용하면서 다문화적 지역성을 공간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이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고, 프랑스인들의 마을로 회자되는 반포동 서래마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지리적 공간성을 창출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국제이주에서 이민의 개념이 확립된 것이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일본의 식민지 침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24]. 개항기의 청국인과 일본인 조계에 기반한 집거지가 형성되었고 이후 문호 개방과 함께 일본 공관원과 가족들 및 식민정책과 관련된 일본인이 한양을 중심으로, 개항장과 개시장, 개방지, 잡거지 등에 주둔하면서 거주지를 정착하였는데 이 때 주요 주둔지역을 결절로 하여 움직임과 동선의 편의성을 축으로 하여 서울에서는 용산에 일본인 마을이 큰 규모로 자리를 잡았다. 해방 이후 주한 미군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전의 일본 정착지인 용산은 미군 부대 기착지로 개발되었고 인근 지역으로 공동체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이태원과 한남동 일대까지 외국인 주거지가 분화되었다. 반포동의 서래마을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인 거주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고급 빌라촌의 형성과 1985년 한남동에 위치하던 주한 프랑스학교가 이주하면서 프랑스인들의 장소적 확립이 이루어졌다[25]. 교육 여건과 환경적 쾌적성을 배경으로 대사관 직원과 프랑스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이주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경제적 여건의 충족이 프랑스 마을을 형성하는데 큰 이유가 되었다 볼 수 있다.

이태원, 방배동, 가산동과 구로동의 외국인 거주공동체 지역에 대한 워크클라우드에 의한 결과는 회자되는 것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서 보여진 클리우딩은 이태원의 축제 등을 포함한다문화적 특성, 방배동과 서래마을의 공원과 프랑스 연상 및 주거단지과 개발에 대한 이미지, 구로와 가산동에서는 근로와 노동 복지에 관련된 용어가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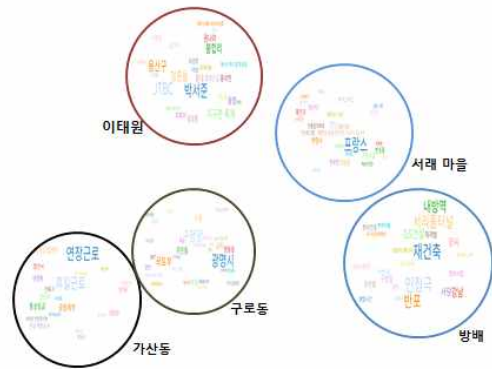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인 거주지역에 관한 워드 클라우딩  
 Figure 3. Word Clouding Result of Foreign Immigrants Communities

해외 이주자들의 정착과정의 공간적 전환은 작은 스케일에서 주로 이슈가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밀집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인종적 편견나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된 갈등에 의해 공간적 경계가 생기곤 한다. 이미 뉴욕의 차이나타운과 할렘 등은 20세기 후반까지 이질적 인종 공동체의 영역적 배제를 받기도 하였다. 공간적 윤리와 지역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자치 정부의 노력, 그리고 시민 의식의 보편적 증대가 타자에 대한 혐오감 및 충돌을 완화시키기는 했으나, 이미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이 경험했던 공간적 고립과 영역의 배제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시아권 이주자들의 밀집 거주지인 구로, 가산, 대림 등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위협하고, 한국 단일 문화권



사회에 비해 개발되지 않은 공간으로 편하되어 이들 장소의 고립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과 소외는 특정 공동체의 외부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으로 나타나 더욱 높은 격리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3. 사례지역별 해외이주자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해외 이주민의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문화의 배경과 이주 목적 즉, 전문직종 노동자의 이주 혹은 저숙련 비전문 노동력의 이주 집단은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각 공동체의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여 민족 집단 혹은 경제적 특성과 연계된 공간성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첫째,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의 등록인구 추이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등록외국인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적별, 자치구별 인구통계가 집계되지 않아서 이 기간을 제외한 시기 동안의 시계열적 인구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이주자 인클레이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확장한 것이다. 연구대상인 각 이주자 집단의 전국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상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환경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6]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자료는 전국 시군구별 산업세계분류별 현황을 보여주는데, 2020년 연내 공표되었어야 했던 2019년 자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어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전국 시군구의 사업체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가. 농·임·어업
- 나. 제조·건설업
- 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라. 대형종합소매업 - 백화점 및 대형마트
- 마. 초등교육기관 - 유치원 및 초등학교
- 바. 중등교육기관 - 일반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
- 사. 고등교육기관 - 대학교 및 대학원
- 아. 병·의원

자. 종교단체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및 기타 단체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27]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집한 서울시 5대 범죄 즉,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안전 지표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사회·환경적 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출처에서 서울시 녹지, 도시공원, 유원지의 면적 데이터를 구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녹지면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웹사이트 [28]에서는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소지 기준의 자료를 통해 서울시 25개구를 거주지로 신고한 인구의 근로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급여 총액을 해당 자치구의 인구수로 나누면 평균 연간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29]에서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세 유형으로 종합주택매매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시군구의 중위매매가격은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의 경우 조사되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 종합주택유형 중 60%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의 평균을 산출해서 각 자치구의 주택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포털에서 50항목의 주요사망원인별 및 시군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제공하는데,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란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로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해서 도출하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인구 십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사회·환경적 지표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사회·환경적 지표로 선정할 유의미한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선정한 서울시의 사회·환경적 지표  
Table 1. Socio-Environmental Index in Seoul City for Statistical Analysis of Multiregression

구분	변수구성	내용	출처
종속 변수	중국인	구별 등록외국인 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19)
	미국인		
	프랑스인		



독립 변수	농·임·어업	농·임·어업 업체수	국가통계포털 전국 사업체조사 서울시 산업세세분류 (2018)
	제조·건설업	제조·건설업 업체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체수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및 대형마트 업체수	
	초등교육기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등교육기관	일반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및 대학원	
	병·의원	병·의원 업체 수	
	종교단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및 기타 시설 수	
	범죄발생건수	구별 5대 범죄 발생건수	
녹지면적	구별 녹지, 도시공원, 유원지 면적	서울시 공원통계 (2019)	
평균소득	구별 평균연간급여	국세통계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019)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구별 아파트 월간 중위매매가격 평균	부동산통계정보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2019)
사망률	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국가통계포털 보건 사망원인통계 (2019)

2019년 말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총 281,876명으로 전국 등록외국인수 총 1,271,807명의 약 22.2%에 해당하며, 지난 20년간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총 181,690명으로 전체 서울시 거주 등록외국인의 6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베트남, 미국, 일본, 타이완, 몽골 등이 거주인구 5천 명 이상을 기록하는 출신국가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국인과 프랑스인은 각각 9,636명과 2,418명으로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3.4%와 0.9%를 차지한다. 서울시 거주 중국인 수는 2015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 보이는 반면, 미국인과 프랑스 출신의 등록외국인 수는 중국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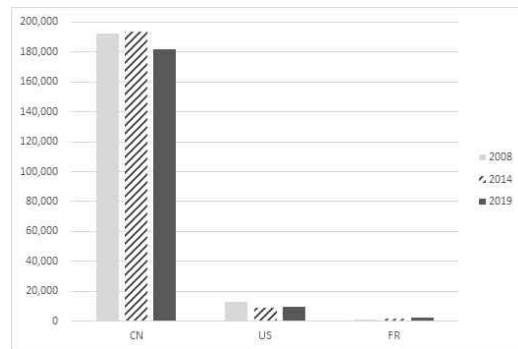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 거주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의 연도별 인구추이, 2008, 2014, 2019

Figure 4. Chinese, American, and French Residents in Seoul City, 2009, 2014, 2019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미국, 프랑스 출신 등록외국인의 집중거주지를 구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집중거주지는 2008년 이후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의 순위 변

화 없이 그대로 상위 5개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가장 다수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영등포구의 등록외국인 수는 점차 감소해온 반면, 구로구와 금천구의 중국인 수는 점차 증가해온 추세이다. 영등포구의 경우 중국인 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한국계 중국인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영등포구의 중국인 수는 감소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로구와 금천구도 한국계 중국인 수는 감소했지만 중국인 수는 증가하여 지난 5년 여간 서울시에 정착한 중국출신의 등록외국인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다수가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는 조선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뚜렷한 에스닉 인클레이브가 형성되어 있다. 서울의 서남부 지역은 과거 구로공단의 노동자 거주지역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서 직장과의 접근성이 높고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조선족이라고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중국 한족의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에 한반도에서 중국 각지로 이주해 정착한 한민족의 후손들을 말한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후반 산업구조의 변화, 고학력 및 저출산, 3D 업종 기피현상 등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개발국가로부터 인력을 공급하는 노동력의 국제이주라는 현상을 맞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농촌 지역 출신 조선족의 국내·외 이주수요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30].

미국출신 등록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등이며 2008년에는 송파구가 상위 5개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송파구보다 마포구로 미국인 집중 거주지가 이동해 왔다. 용산구 용산동과 한강로동은 1953년부터 입주하고 있는 미국육군기지로 미국인의 집중 주거지를 형성해왔는데 2021년 1월 현재 경기도 평택시로의 이전계획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프랑스인은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에 집중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밖에 종로구, 강남구, 중구 등은 초기와 다르게 프랑스인 집중 거주지에서 점차 제외되어 왔다. 대표적인 프랑스인 인클레이브로 여겨지는 서초구 반포동 및 방배동 일대 서래마을에는 1985년 프랑스학교가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

곳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프랑스인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고, 초기 프랑스 출신 이주자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프랑스 이주자 인클레이브가 생기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식 음식점, 카페 등이 유명해지면서 내국인들에게 관광지로도서의 기능도 하게 되어, 공공장소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듯이 지역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병기하고 있고 프랑스어 지원 공공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프랑스인의 인클레이브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서울시 거주 중국, 미국, 프랑스 출신 등록외국인 수 상위 5개구(2019) (단위: 명)

Table 2. Top Fiv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from China, US, and France

순위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1	영등포구 (30,902)	용산구 (2,494)	서초구(500)
2	구로구 (30,603)	마포구 (1,148)	마포구(337)
3	금천구 (17,599)	서대문구 (795)	용산구(315)
4	관악구 (12,878)	강남구(779)	서대문구(205)
5	광진구 (10,773)	서초구(524)	관악구(137)

서울시 거주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의 기초통계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뚜렷한 이주자 경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의 14개 사회·환경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등록외국인 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세 차례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서울시 25개 구 회귀분석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Regression in Seoul

종속 변수	R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p	Durbin-Watson	공차	VIF
중국인 수	.602	.363	.305	.029	2.220	1.000	1.000
미국인 수	.572	.327	.266	.041	2.052	1.000	1.000
프랑스인 수	.844	.713	.655	.002	1.557	.326	3.065

단계적 입력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확률은 중국인 수, 미국인 수, 프랑스인 수가 각각 0.029, 0.041, 0.002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up>2</sup> 값은 프랑스인이 가장 높은 0.713, 중국인 0.363, 그리고 미국인이 0.327을 나타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면 R<sup>2</sup>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정된 R<sup>2</sup>값을 살펴보면, 프랑스인의 경우 0.655로 높게 나타나 독립변수가 65.5%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중국인의 경우는 0.305, 미국인의 경우 0.266으로 다소 낮은 값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김혜진과 이자원(2018)은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태 관련 연구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여타 학문에서의 결정계수의 해석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은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의 더빈-왓슨 값은 각각 2.220, 2.052, 1.557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고 그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일 경우는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의 VIF는 각각 1.000, 1.000, 3.065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단계적 선택방식으로 출력한 서울시 25개 구별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서울시 구별 거주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Each Districts in Seoul City

독립 변수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β	t	p	β	t	p	β	t	p
녹지 공원	-0.602	-2.503	.029	-	-	-	-	-	-
연봉	-	-	-	.572	2.311	.041	1.429	4.818	.001
병·의원	-	-	-	-	-	-	-.958	-3.228	.009

유의확률 p값은 모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계적 선택방식의 결과에서는 유의한 독립변수가 녹지공원 면적 1개로 확인되며 나머지 변수는 제거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준화 베타(β) 지수를 보면 녹지공원 면적은 중국인 등록외국인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미국인의 경우는 연봉 1개의 독립변수가 유의한 모형을 도출하였고, 구별 평균 연봉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프랑스인 수의 경우는 연봉과 병의원 수 2개의 모형을 제시해주었는데,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봉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병·의원 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미국 및 프랑스 등 OECD 가입국가 출신국적 등록외국인의 거주지와 중국출신 등록외국인의 거주지 간의 사회적 환경의 격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III. 논의 및 결론

외국인 이민자와에 의한 지역 통합은 한 장소를 공유하면서 특정 민족 혹은 문화적 특이성을 지닌 집단에 의해 점유되고 기존의 주류 사회의 의미가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공간적 전환을 이루게 된다. 문화와 사회적 관계는 오랜 전통의 익숙함과 고유의 사회 정치적 배경에 의해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면서 새로운 장소의 영역을 이루기도 한다. 지금까지 해외이주민의 한국 이입과 거주지의 분포현황 및 공간적 함의를 추론하기 위해 주로 통계적 추이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비판적 사고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관’적 접근을 통해 지연 사회내에서의 각기 다른 문화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공동체를 비교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 새로운 문화를 지닌 이주민의 접목이 지역 사회내에서 배제되고 차별되는 현상, 혹은 특수한 새로운 경관으로 지역 개발 차원에서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서로 다른 이주민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주류 사회와 동화될 수 있는 속성은 사회경제적 안정과 선진화된 유형의 문화를 지닌 공동체가 기존 지역들과 어울려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기가 보다 안정적이다.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고 이를 지역 통합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지속적 증대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인구학적 여러 이질적 문화권의 어울림, 사회 이념에서 차별과 차등없는 공동체 개념으로

의 통합, 그리고 정부 정책의 개념으로 정의한 트로피 [31]의 견해처럼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인구통계적 행정의 적용은 물론 사회의 지역성과 관련된 지속적 안전과 건강한 공동체 수립에 대한 수용 등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이 단순히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수동적 편재라기 보다 전 지역구성원에 대한 동등한 서비스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관적 특성이 특정 장소의 장소성은 물론 그 안에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가 모자이크되어 하나의 또 다른 색채를 띠는 지역 구조를 생성해 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다문화적 소수공동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 수용을 통한 지역 구조의 생동적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내 해외 이주민들은 리 먼 읍 동 등의 해당 지자체에 속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전체 인구 비례당 소수의 수치를 보임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 그 특성을 뚜렷이 밝히기가 쉽지 않다. 소수의 인구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의 부재가 연구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여러 제한으로 인해 아직까지 각각 이주민 정착지역에 대한 사회적 동화과정 혹은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수치로 계량화하여 분석하기보다 경관상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전환과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사회공간이 지역과 국가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또다시 사회공간을 구조화해 된다. 시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구조화된 공간은 일정의 헤게모니적 질서를 구축하고 이로 인해 그 안에서의 차이들이 서로 어울려 점점 안정화되고 존재적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의 생성은 바닥(길이나 통로)-사람들의 움직임 (언어와 색감의 분위기, 건물의 유형 등 보다 동태적인 이미지)-천장 (지형적 고도와 마천루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적 경관으로 결과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등을 국토 정책과 안전한 공동체의 지역사회 개념에서 수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통계적 행정관리와 함께 보다 질적인 경관연구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서비스를 통해 보호하고 보장해 나가야 함이 중요하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혼재가 인클레이브되면서 지역내 상이성을 이루고 대립된 구조로 파편화되는 것을 지양

하기 위해 다원화된 사회인구적 현상을 수렴하고 함께 존립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식이 확장되어야 한다. 때로는 인클레이브된 이질적 문화의 경관이 곁붙어 있다해도 민족 인종 그리고 국적과 차별없는 새로운 장소성의 팻치로 인식하고 이를 즐겨워할 수 있는 장소감의 연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합의된 인권에 대한 인정과 환경적 정의로움, 그리고 민주주의적 규범 등이 그 가치를 자아낼 수 있는 지역환경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있어 경관의 창출적 종합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를 실천한 지역의 성과가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Lee H.Y. *History of Geography*, Bubmoonsa, 1991. 이희연, 지리학사, 범문사, 1991.
- [2] Lefebvre H., 1990,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 [3] Choi B., et al., *Localization and Multicultural Space*, Pureungil, 2011. 최병두 외,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 [4] Ministry of Justice, 2008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Yearbook, 2009. 법무부, 2008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연감.
- [5] <https://www.bigkinds.or.kr/>
- [6] In this study, migrants are defined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No. 17365. It i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completed alien registration, that is, a person who has registered with the head of the regional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in order t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90 days from the date of entry.
- [7] Harvey D., 1985,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 [8] Oh K., "What kind of multiculturalism is it?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in Korea: Reality and Issues*, Hanul Academy, 2007.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9] Kim N., "Police Directions for Foreigners to Realize an Open Society," *Theorizing of Korean Multiculturalism*, Korean Sociology Society, 147-179, 2007. 김남일,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 정책 방향”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147-179, 2007.
- [10]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9, 2019, Local government foreign residents survey results, 2009. 행정안전부, 2019,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결과.
- [11]Lee H., “Migrant Labor Movement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In the Direction of Expansion and Inclusion”, *Korean Sociology* 42(2), 104-137, 2008. 이해경,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104-137.
- [12]Yoon I., et als.,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n Sociology*, 42(2), 72-103, 2009. 윤인진 외, 2009,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13]Mitchell K., 1993, “Multiculturalism, or the united colors of capitalism?”, *Antipode* 25(4), 263-294., quoted in Choi B., *Critical Ecology and Environmental Justice*, Hanul, 2009.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 [14]Dirlik A., “Place-based imagination: Globalism and the Politics of Place”, *Place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balization*, Rowman and Littlefield, MD, 15-52, 2001.
- [15]Jessop B., “Time and Space i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their Implications for State Power”, *Rethinking Marxism* 14(1), 97-117, 2002.
- [16]Lee J., “Study of the 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community”,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9(2), 187-198, 2015.
- [17]\_\_\_\_\_, “Rurban Design and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1, pp.07-15, February 28, 2018. (<https://doi.org/10.17703/JCCT.2018.4.1.7>)
- [18]Mitchell K., 2004, “Geographies of identity: multiculturalism unplugg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5), 641-651.
- [19]Park B., “Spatial Approaches to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ettlement”, *Global Localization and Multicultural Space*, Pureungil, 58-97, 2011. 박배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 [20]Jessop B., et als.,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 [21]Agnew J., 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Allen and Unwin, Boston.
- [22]Harvey D., 1989, *The Urban Experience*, Blackwell, Oxford. Park B., “City and Politics”, in Kim I., and Park S. eds., *Urban Interpretation*, Pureungil, 2006. 박배균, “도시와 정치”, 김인, 박수진 엮음, 도시해석, 푸른길.
- [23]Kim H., and Lee J., 2018, “Examining the residential patterns of urban immigra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6(3), 37-43.
- [24]Messey D.S., and Denton N.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 [25]same as [18] : Masey and Denton verified five dimensions of segregation including evenness, exposure, concentration, centralization and clustering as quantitative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residential segregation, which has been consistently used by some researchers.
- [26]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20.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20
- [27]Kim H.,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s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Thesis at Jeonnam University, 2011. 김홍매, 2011,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 정책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28]Han S., et als., “A study on place identity in Seo-Rae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7(4), 32-41., 2009. 한성미, 임승빈, 엄봉훈, “서래마을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 [29]<http://kosis.kr>
- [30]<https://data.seoul.go.kr>
- [31]<http://stats.nts.go.kr>
- [32]<http://www.r-one.co.kr>
- [33]Hwang Y., Kim H., “The study on the leg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living in Korea,” *Diaspora Study*, 5(1), 46, 2011. 윤황, 김해란,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사회지위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 [34]same as [23]
- [35]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Magocsci p. R. ed.,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997-1006.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funding (2019-81-027).